

茶山の 農歌詩에 담긴 音樂的 담론

金世鍾*

<차 례>

- I. 머리말
- II. 다산의 농가시 배경
- III. 농가시의 음악적 속내
- IV. 맺는말

I. 머리말

우리는 다산 정약용¹⁾을 정치·경제·사회·역사·문학·과학·군사·

* 동국대학교

1) 茶山 丁若鏞은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현 남양주군 와부읍 능내리)에서 진주목사를 지낸 丁載遠과 해남윤씨 尹善道의 6세 손녀이자 恭齋 尹斗緒의 손녀딸과의 사이에서 4남으로 1762(영조38)년 6월 16일에 태어나, 1836(헌종2)년 마현리의 옛집에서 2월 22일에 향년 75세로 돌아갔다. 본관은 押海(羅州)이고, 아명은 歸農이며, 若鏞은 그의 관명이다. 자는 美庸 또는 頌甫이다. 호는 俟菴·冽樵·竹翁·籟翁·筠庵·紫霞道人·茶山樵夫·苔上釣叟·門巖逸人·鐵馬山樵夫·籟皮翁·冽水翁·茗谿·與猶病翁 등이며, 三眉子는 별호이다. 與猶堂은 그의 당호이며, 『老子』의 '與兮若冬涉 猶兮若畏四隣' 곧 여는 겨울 냇물을 건너는 듯 하고, 유는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 하다는 뜻이다. 시호는 文度이다. 더욱이 그의 호 중에서 열수

교육·음악·미술 등 두루 정박명정(精博明正)한 탁견(卓見)을 지닌 분이 자,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분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다산은 음악학에 밝았다. 다산의 음악학은 다산학의 귀결이랄 수 있는 경학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다산은 수기지학(修己之學)인 육경사서(六經四書)와 치인지학(治人之學)인 일표이서(一表二書)를 비롯해²⁾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경제적인 사회시³⁾를 자주적 관점에서 표현함으로써 실리와 실용의 학문에 토대를 둔다면, 다산의 음악학 역시 경학 중심의 『악론(樂論) 1·2』와 『악서고존(樂書孤存)』¹²권, 그리고 다산이 유배지에서 본 농·어민들의 삶의 모습들을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읊고 있는 악부시에서 다산의 음악학적 포리 관계를 살필 수 있다. 곧 다산이 음악의 중요성을 논한 『악론(樂論) 1·2』와 경전 재해석을 통하여 고대 중국의 여러 음악이론을 비판하고 선진음악(先秦音樂)의 음율체계⁴⁾를 새롭게 밝혀 놓은 『악서고존(樂書孤存)』

는 한강의 옛 지명으로, 그 연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다산 역시 강진군 도암면 굴동의 산명을 딴 것으로 유배지의 지명을 호로 부른 것이며, 삼미자는 7세 때에 천연두를 앓아 오른편 눈썹이 나뉘어졌으므로 부쳐진 별호이다. 사암은 '百世以俟聖人而不惑' 즉 뒷날의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또는 당대에는 쓸모가 없지만 먼 훗날을 기다려 보면 다소 쓸모가 있는 사람 일 것이더라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다.

- 2) 다산의 『自撰 墓地銘(집중본)』에 보면 다산의 저술은 經集 232권, 文集 126권, 雜纂 141권으로 총 499권이다. 그러나 『冽水全書總目錄』에 의하면 經集 250권, 文集 126권, 雜纂 166권으로 총 542권이다. 자세한 내용은 金相洪, 『茶山 丁若鏞文學 研究』, 단국대출판부, 1985, 37쪽 참조.
- 3) 다산의 시는 수학기·사환기·유배기·소요자적기 등 4부분으로 나누어져 설명된다. 첫째, 수학기의 시는 179편에 261수이고, 둘째, 사환기의 시는 454편에 660수이고, 셋째, 유배기의 시는 234편에 573수이고, 넷째, 소요자적기의 시는 328편으로 총 1,195편에 2,263수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金相洪, 『茶山 丁若鏞文學 研究』, 37쪽 참조. 또한 金智勇·南晚星역, 『茶山詩文選』, 대양서적, 1972, 105쪽에서는 다산의 시는 2,466수나 되고, 4언 34수, 6언 1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5언 내지 7언 읊시요, 그 중에서도 서사시가 특징적이다 하였다.
- 4) 金世鍾, 「三分損益法의 史的 考察-茶山の 『樂書孤存』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2, 5쪽 참조.

에서 다산의 경학 중심의 음악관⁵⁾과 경제적인 시를 통하여 다산의 음악학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산 스스로 지은 묘지명과 시집에서 잘 나타난다. 다산은 묘지명에서 『악서고존』을 가리켜 진·한이래 2천년 동안 형클어진 머리를 빗질하여 골라 놓았으며, ‘요·순시대의 근본방법에서 만에 하나의 잘못도 없으리라 믿으며, 5천 년 전 율려에 관한 학문의 근본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내었다’⁶⁾고 자평하고 있으며, 다산의 형님(若銓) 또한, 『악서고존』을 보시고, ‘2천년 동안의 긴 밤에서 한번 꿈 처럼 이제야 대악(大樂)의 혼이 되돌아왔다’⁷⁾고 할 만큼, 진·한이래 잃어버린 악경(樂經)의 회복을 신의(神意)롭게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조선인이기에 조선시를 즐겨 쓴다(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고 하였듯이, 현실적이고 자주적인 시를 통하여 조선후기 억압받는 백성들 편에 서서 작금의 사회 현실을 한탄하고 비판하며 저항하는 농촌생활을 읊은 시집(詩集)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악론』과 『악서고존』에서 언급한 음악 이론적 접근 보다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농가(農歌)’ ‘촌요(村謠)’란 글제로 지은 시들을 농가시라 이름하고, 이들 농가시에 담긴 음악적 글귀 중에서 그 시대적 음

5)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는 반드시 음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중략)- 성인의 도도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제왕의 정치도 음악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여, 천하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되지 못한다(중략)- 음악이 없어지자 형벌이 심해졌고 음악이 없어지자 병란이 잦아지게 된 까닭이다(중략)- 그러므로 음악을 진작시키지 않으면 교화는 시행할 수 없으며 풍속도 마침내 변화시킬 수 없으며, 천지간의 화기도 마침내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教人之必以樂 不其宜乎-(中略)- 聖人之道 非樂不行 宰王之治 非樂不成 天地萬物之情 非樂不諧-(中略)- 此其所以樂亡 以刑罰重樂亡 而兵革頻者也-(中略)- 樂不作 教化終不可行也 風俗終不可變也 而天地之和終不可得而致之也) 해석은 李翼成譯, 『茶山論叢』, 을유문화사, 1969, 36~40쪽 참조.

6) 위의 <인용문1~3>까지는 시인사, 1985, 179쪽 참조.

7) 朴錫武譯, “先仲氏 丁若銓 墓地銘”, 『다산 산문선』, 창작과비평사, 1989, 207쪽 참조.

악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구전으로 전하는 민요의 역사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다산의 농가시 배경

다산의 농가시는 일단 책룡사건(冊籠事件: 辛酉獄事)⁸⁾을 발단으로 쓰여진다. 다산의 나이 40세(1801) 때의 일로 이에 연루되어, 다산은 18년 동안의 긴 유배 길에 오른다. 따라서 다산은 그 해 2월 28일 서울을 출발하여 충주를 거쳐 3월 9일 장기[지금의 경상북도 연일군 장기면] 만산리 성선봉(成善封) 집에 도착하여 지내다가, 같은 해 10월 황사영(黃嗣永) 백서사건(帛書事件)이 일어나자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전라도 강진(康津: 耽津)으로 유배지를 옮기면서 시작되는 유배생활 초기 40세~41세(1801~1802) 사이에 지어진 농가시이다. 다산은 첫 유배지인 ‘장기[長鬢: 鬢城]’에서 하루종일 하는 일이 없어 때때로 짧은 시를 지었는데 순서 없이 섞어 놓았다는 기성잡시(鬢城雜詩) 서문의 술회에서 알 수 있듯이, 10개월간 장기에서 머무는 동안 장기 백성들의 늦봄부터 여름철 풍경과 보리타작 모습을 장기농가(長鬢農歌) 10장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듬해 재차 유배지를 옮긴 강진 백성들의 참담한 보릿고개 실상과 탐관오리의 횡포에서부터 여름철 모내기 풍경, 가을철 추수 풍경을 묘사한 탐진촌요(耽津村謠) 20수·탐진농가(耽津農歌) 10수를 비롯해, 어촌의 고기잡이 모습

8) 1801년 辛酉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책룡사건 또는 ‘辛酉邪獄’ ‘辛酉迫害’ ‘辛酉教獄’ 등으로 불린다. 1800년 49세의 학자 군주이던 정조대왕이 재위 24년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노론 벽파의 호위 아래 11세의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실제의 정권을 노론 벽파가 잡게 되자, 시파로 남인이던 다산 일파를 천주교도로 몰아 혹독한 탄압과 박해를 가한 일.

들을 읊은 탐진어가(耽津漁歌) 10수를 짓는다. 이러한 농가는 탐진농가 발문⁹⁾에서 그 경위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후에 탐진촌요 20수·탐진농가 10수·탐진어가 10장 등은 다산의 '탐진악부'¹⁰⁾로 명명되어 당시 서울까지 유전되어 회자되었다고 이학달(洛下 李學達: 1776~1835)는 『영남악부』서문에서 밝히고 있다.¹¹⁾

다산의 시는 이와 같이 강진에서 지어진 탐진 농가시를 통하여 그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시 세계관을 정립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산의 농가시는 주로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탐관오리의 횡포를 현실적으로 읊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산은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 풍조가 우리문학을 아주 배척하고,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손도 대지 않으려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답시고 중국의 일이나 인용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를 개탄하면서 이들이 멀리하였던 우리나라 속어사용을 꺼려하지 않고 토속어를 시어로 구사하는 등¹²⁾ 조선시론을 개척한 분이자, 다산이 71세에 '나는 조선인이기에 즐겨 조선시를 쓴다(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고 선언함으로써, 흔히들 다산의 시를 경세적 자주적 사회시라는 호칭이 극명해진다. 그러므로 다산의 시에는 항상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비판적이고, 경세적이고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시 세계관을 굳건히 실천한 분으로 추앙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산의 농가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산의 이와 같은 농가시는 다산학의 또 다른 학문세계를 개척하는 초석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다산의 농가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이해를 요구하는데, 첫째는 다산이 살았던 왕조 중 특히 정조의 삶이 다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는 다산의 이러한 시 세계관을 갖게된 배경을 고구 할 필요가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다산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조(1725~1776)·정조(1777~1800)·순조(1801~1834)·헌종(1835~1849)의 네 왕조를 살았다. 이것을 다산의 나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산의 나이 1세~15세(1762~1776)까지는 영조시대, 16부터~39세(1777~1800)까지는 정조시대, 40세~73세(1801~1834)까지는 순조시대, 74세~75세(1835~1836) 돌아가던 시기는 헌종시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다산의 정치적 여명기를 과거급제로 본다면,¹³⁾ 과거급제이전의 수학기(修學期: 1762~1788), 과거급제이후의 정치적 사환기(仕宦期: 1789~1801), 정조의 죽음과 신유옥사로 인한 유배기(流配期: 1801~1818), 18년 간 유배생활을 마치고 57세(1818) 9월에 본가로 돌아와 향거(鄉居)하던 소요기(逍遙期: 1818~1836) 등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산의 정치적 사환기는 정조와 그 명운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다산은 정조가 양성한 인재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다산 또한 정조의 학문은 '제왕가(帝王家)는 물론이요 비록 그 아래에 있는 자라도 그의 영역에 미치는 자가 적다'¹⁴⁾ 할 만큼, 정조의 높은 학문을 인정하는 사이였다.

9) 『與猶堂全書』 1集, 14卷에 이 '탐진농가첩'은 내가 유배생활 할 때, 지은 것이란 서두로 시작하여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참고 바람.

10) 金相洪, 『丁茶山の 樂府詩 研究』, 『檀國大學校 論文集』 제13집 참조.

11) 영남악부는 이학달이 경상도 김해에 귀향 가 있을 때 1808년 순조8년에 신라에서 고려말까지의 영남지방에 속한 인물과 사적들을 들어 지은 것으로서 63편이다. 1802년에 지은 다산의 탐진악부가 1808년에 쓴 영남악부에서 서울까지 유전되어 회자되었다고 밝힌 것은 다산시의 우수성과 그의 문학적 명성이 어떠한가를 입증하며, 또한 시인적 위치를 웅변해주는 기록이기도하다. 金相洪, 『茶山學研究』, 178쪽, 참조.

12) 다산의 탐진농가에 표현된 자주적 시 세계관을 보여주는 시어로서, 곧 보리 고개[麥嶺]·대감(大監)·아가(兒哥)·첨지(僉知)·하납(下納)·반상(盤末)·밥모(飯秧)·돈모(錢秧)·높새바람[高鳥風]·맛바람[馬兒風] 등이다.

13) 다산은 나이 21세 되던 1782(정조6)년 2월에 세자책봉 경축 증광감시(增廣監試)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4월에 회시(會試)에 합격하여 宣政殿에서 정조와의 첫 대면을 인연으로 28세 되던 1789(정조13)년 3월에 갑과(甲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禮陵直長이 되었고, 5월에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었다.

14) 『文體策』, 『與猶堂全書』 1집 8권, 景仁文化史, 1970, 166쪽 참조.

더욱이 다산은 28세 되던 1789(정조13)년 3월에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5월에 초계문신(抄啓文臣)¹⁵⁾이 되는데 대하여 긍지를 가졌었고, 또한 정조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조는 다산의 나이 39세에 하세 하고, 다산은 40세 1801년 신유옥사에 연루되어 긴 유배생활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산에게 있어서 불혹(不惑:40세)은 사환기(仕宦期)에서 유배기(流配期)의 생활로 극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다. 따라서 우리는 다산이 정조와 함께 하였던 11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11년 동안의 다산과 정조는 무엇을 논의하고 걱정하고, 다산은 정조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려고 했으며, 정조가 다산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 다산의 학문을 이해하는 척도라 사료된다. 따라서 정조의 시대는 임금이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인재가 곁에 있어, 마치 조선 초기 세종시대와 같은 시대를 일루고자 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른 민심의 동요가 관건이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당시 개혁적 성향을 지닌 초계문신들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로, 다산의 위의 농가시 같은 세계관은 어디까지나, 『시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다산의 농가시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보아 듯이, 다산의 시에는 그의 독자적인 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아들들 가르치는 편지 문구를 간추려 보면, 그의 시에 대한 기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인용1〉 『시경』에 있는 모든 시는 충신·효자·열녀·진실한 벗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의 발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중략)- 무릇 시의 근본은 부자나 군신·부부의 인륜을 밝히는데 있으며 더러는 그 즐거운 뜻을 선양하기도 하며, 더러는 그 원망하고 사모함을 도달하게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다산의 시는 『시경』을 모태로 하여 다산의 새로운 시 세계관을

성찰하고 있다. 다산은 『시경』에 대한 학설로 시란 간림(諫林)이다. 간림이란 바른말을 간한다는 뜻이다. 시는 본래 포핍(褒貶) 곧 칭찬하는 일과 비방하는 소리를 고몽(鞀蒙)들이 아침저녁으로 풍자하여 노래 불러 임금으로 하여금 착한 것은 듣고 느껴서 실천하게 하고, 악한 것은 듣고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까닭이다¹⁶⁾ 하여 시를 풍자와 정언으로 나뉘고, 다산의 시에는 전반적으로 풍자보다는 바른말을 권하는 정언에 더욱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다산은 아들들에게 시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용2〉 시를 애써 힘쓸 필요는 없으나 성정을 도야하려면 시를 읊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중략)- 백성에게 혜택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 너도 그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중략)-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며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지 않은 내용이 시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하고 미운 것을 밋다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지 않은 내용의 시를 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중략)-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들을 증오히 여지며 항상 무력한 사람을 들어 올려주고 무산자(無產者)를 구휼하고 싶어 방황하고 안타까워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뜻이 있어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자기의 이해에 연연하면 그 시를 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중략)- 『시경』에 실려 있는 삼백 편의 시는 모두 현인이나 성인이 실의에 빠져있는 세상일을 근심하던 때 지은 시이므로 시가 모두 감개(感慨)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극히 힘써야 할 점은 미묘(微妙)하고 완곡(婉曲)하게 그런 뜻을 나타내야지 알파하게 보이도록 토로해 버려서는 안 된다.

〈인용2〉에서 다산은 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①시는 성정 도야에 도움이

16) 舜임금 시대 5聲 6律로써 5음을 노래하였다고 하는데, 5음 이란 여섯 가지 시법 중에 다섯을 말한 것으로 풍(風)·부(賦)·비(比)·흥(興)과 악(雅)가 다섯이며, 단지 송(頌)만을 세지 않는 것이라. 이 풍·부·비·흥은 풍자한다는 말이고, 소아(小雅)·대아(大雅)란 정언(正言)으로 간한다는 뜻이다.

15) 鄭玉子,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 『奎章閣4』, 서울대도서관, 1981 참조.

되며, ②시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시를 지을 자격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나아가 다산은 ③입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의 삶을 아파하고, 시대에 저항하지 않은 시는 시가 될 수 없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이 담겨지지 않은 시는 시가 아니며, 자기의 이해에 연연하면 시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다산은 ④시는 백성들을 공홀히 여기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도우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시가 되며, 『시경』에서 같이 감개(感慨)한 내용보다는 미묘하고 완곡하게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다산은 시 짓는 방법에 대하여 작금의 현실을 나무라고 그에 따른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인용3〉 근래 수 십 년 이래로 한 가지 괴이한 논의가 있으니 이견 동방문학을 아주 배척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손도 대지 않으려 하니 이거야말로 병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중략)-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답시고 중국의 일이나 인용하고 있으니 이견 또 볼 품 없는 일이다. 아무쪼록 『삼국사기』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정비록』 『연려실기술』 및 우리나라의 다른 글 속에서 그 사실을 뽑아내고 그 지방을 고찰하여 시에 인용한 뒤에 라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가 나올 것이며 세상에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중략)- 시에 역사적 사실을 전혀 인용하지 아니하고 음풍영월이나 하고 장기 두고 술 먹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시를 짓는다면 이거야말로 벽지의 시골 산비탈에 서너 집 모여 사는 촌사람의 시에 지나지 않는다. 차후로 시를 지을 때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라.-(중략)- 당시 시율(5언 7언 8행시)만 지으려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루 한 습관인데 실제로 5자 7자로 된 고시는 옛 사람들의 시에서는 한사람도 보지 못했다.-(중략)- 당시(唐詩)의 본래 뜻했던 바는 글자마다 운을 통용할 수 있게 하여 4귀마다 따로 한 장이 되게 하였으며 절구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이게 바로 연환율법(連環律法)이라는 것이다. 시 전체에 대해 단지 한 가지 운만 사용하는 방법은 시 짓는 법에는 없다. 17)

17) 위의 〈인용문 1~3〉은 필자가 朴錫武譯, 『流記地에서 보낸편지』 중 31, 35, 49,

이와 같이 다산은 근래 우리문학을 배척하는 풍조를 질타하면서, 시를 지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적절히 발췌하여 인용하라는 가르침과 함께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주고 있다. 더욱이 다산은 당시(唐詩)의 5언·7언 율시만을 짓고 있는 사회적 풍조를 비판하면서, 운을 통용하면서 서사시처럼 연결되는 연환율법(連環律法)을 가르치고 있다. 이 연환율법은 다산의 시 세계관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작법 기법으로 농가시가 모두 이에 속한다.

Ⅲ. 농가시의 음악적 속내

여기서는 다산의 첫 유배지의 농촌풍경을 담은 장기농가(長鬢農歌) 10장과 타맥행(보리타작)을 비롯하여 이듬해 강진으로 옮겨서 지은 탐진촌요(耽津村謠) 20수 중 15수·탐진농가(耽津農歌) 10수 등에 국한하여 살펴 보겠다. 나아가 다산의 농가시 중에서 음악적 배경 설명이 가능한 시어를 통하여, 그 당시 농촌풍경에 따른 음악적 풍경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다산의 농가시는 장기와 강진 백성들의 참담한 실상과 탐관오리의 횡포를 소재로 하여 노래한 것이지만, 실제 음악적 노랫말을 소재로 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구절의 낱말이 음악적 해석을 낳아 설명되므로, 음악선율과의 관계성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농가시에 나타나는 음악적 배경 사이의 유기적 관계성을 주목하기 바란다. 또한 다산의 농가시는 여러 책의 번역본이 있어 참고하였다. 18)

51, 84, 121, 123쪽의 내용임.

18) 필자가 참고한 번역본은 朴錫武 譯, 『哀絶陽』(시인사, 1983), 86~121쪽 참조; 金智勇·南曉晚 譯, 『茶山散文選』(대양서적, 1972), 153~162쪽 참조; 宋載邵 譯註, 『茶山詩選』(창작과비평사, 1992), 221~233쪽 참조.

1. 장기농가 10장

장기농가 10장은 다산의 첫 유배지인 장기 곧 지금의 경상북도 연일군 장기면의 만산리 성선봉(成善封)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그 해 10월 강진으로 이사 가기까지 약 10개월간의 장기의 농촌풍경을 장기농가(長鬢農歌) 10장으로 구성하여 노래한 것이다. 또한 타맥행[보리타작]은 농가 10장에 별도로 지어진, 장기의 보리타작 모습을 시로 읊은 것 같다. 시의 작법은 연환율법(連環律法)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麥嶺崎嶇似太行(맥령기구사태행) 보리 고개 험하기가 태산행 같아
 天中過後始登場(천중과후시등장) 단오절 지나서야 풋보리라도 나오는데
 誰將一椀熬青麩(수장일완오청초) 어느 누가 풋보리 죽 한 사발 떠서
 分與籌司大監嘗(분여주사대감상) 주사 대감 맛보라고 바쳐볼 건가.
- 2
 秧歌哀婉水如油(앙가에원수여유) 모심는 소리 구슬픈데 눈물은 넘실대네
 嗔怪兒哥別樣差(진괴아가별양차) 저 아가는 유난히도 저렇게 수줍은고
 白苧新裙黃苧帔(백저신군황저피) 흰모시 새 적삼에 노란 모시 긴치마를
 籠中十襲待中秋(농중십습대중추) 장롱 속에 깊이깊이 넣어두고 추석날
 만 기다리네.
- 3
 曉雨廉纖合種烟(효우렴섬합종연) 새벽 비 보슬보슬 담배 모종하기 좋
 겠네
 烟苗移插小籬邊(연묘이삽소리변) 담배 모종 옮겨다가 울 밑에 심어야지
 今春別學英陽法(금춘별학영양법) 금년 봄엔 영양의 담배 기르는 법 배
 워 두어

要販金絲度一年(요판금사도일년) 금사 같은 담배 팔아 일년 내내 살아야지

4.
 新吐南瓜兩葉肥(신투남과양엽비) 새로 심은 호박 두 잎이 탐스럽더니
 夜來抽蔓絡紫扉(야來추만락자비) 밤사이 덩굴 뻗어 사립문을 감싸 얹네
 平生不種西瓜子(평생부종서조자) 평생에 안 심을 건 맛좋은 수박이라
 剛怕官奴惹是非(강파관노야시비) 관노 놈들 몰려와서 시비 걸까 걱정이네

- 5
 鷄子新生小似拳(계자신생소사권) 새로 깐 병아리 작기가 조막 만해
 嫩黃毛色絕堪憐(넉황모색절감연) 노란 고운 털 빛 어여쁘기 짝이 없네
 誰言弱女糜虛祿(수언약여미허녹) 그 누가 어린 딸 공밥 먹는다 말하라
 堅坐中庭看嚇鶩(견좌중정간혁연) 마당가에 붙어 앉아 솔개 보는 것을

- 6
 蒹初剪牡麻鋤(전마초전모마서) 어저귀 삼 초벌 순 메고 나니 숫 삼발
 뭇 때라네
 公姥蓬頭夜始梳(공모봉두야시소) 늙은 할멈 쑥대머리 밤에 사 빗질하며
 蹴起僉知休早臥(축기침지휴조와) 일찍 자는 침지 영감 발로 차 일으키며
 風爐吹火改纜車(풍로취화개소차) 풍로에 불붙이고 물레도 고쳐야지

- 7
 蒿葉團包麥飯吞(와엽단포맥반탄) 상치잎 움켜잡고 보리밥 들들 싸서
 合同椒醬與葱根(합동초장여총근) 파·고추장 섞어 넣어 먹어야지
 今年比目猶難得(금년비목유난득) 금년엔 넘치마져 구하기 어렵구려
 盡作乾鱸入縣門(진작건숙입현문) 잡는 족족 건어 만들어 관청에 바치기
 바쁘네

- 8
 不教黃犢入瓜田(불교황독입과전) 송아지 오이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移繫西庭磔磔邊(이계서정록독변) 서편 뜰 씨레 끝에 단단히 매어 두었
으니
里正曉來穿鼻去(이정효래천비거) 날셀 녘 이정이 와서 코 꿰어 물고 가고
東萊下納始裝船(동래하납시장선) 동래 하남 배 들더니 짐 싣느라 부산
하네

9
菘葉新畦割半庭(송엽신휴할반정) 알마당 반을 일귀 배추포기 심었더니
苦遭蟲蝕穴星星(고조충식혈성성)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 송송 뚫어졌네
那將訓練臺前法(나장훈련대전법) 훈련대 배추 가꾸는 법 배워다가
恰見芭蕉一樣青(흡견파초일양청) 언제 파초 같은 배추 잎을 길러볼 수
있으리

10
野人花草鬻巖邊(야인화초장앵변) 시골집 장독대가 화초라곤
不過鷄冠與鳳仙(불과계관여봉선) 고작해야 맨드라미 · 봉선화로세
無用海榴朱似火(무용해류주사화) 버려진 해류화가 불꽃 같이 불 길래
晚春移在客窓前(만춘이재객창전) 늦은 봄날 옮겨다가 객창 밑에 심었다네

이상과 같이 다산은 장기의 농촌풍경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다산의 장기농가 1장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번쯤 넘겨 보았을만한 보리 고개의 참상을 위정자 알아야 한다는 뜻을 슬회하고 있다. 2장은 농촌풍경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모심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며, 곧 ‘앙가’라는 시어가 그것이다. 다산은 장기지방 백성들이 모내기를 할 때, 모심는 소리를 불러가며 일하는 광경을 나타낸 것이며, 다산은 이 소리를 애절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주의 깊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실제 장기지방의 모심기 소리의 선율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부분이다. 다산은 구슬픈 모심는 소리의 댓구로 갖 시집은 아가의 수줍음과 서툰 일솜씨를 웃음으로 자아내면서 장기의 모심는 풍경

을 읊고 있다. 다산은 3장 · 4장 · 5장에서는 장기의 늦봄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편집과정에서 순서가 어긋난 것 같다. 왜냐하면 농사 절기로 보면, 담배 모종이나, 호박잎 새순, 병아리 부하는 모습은 2장에서 말한 모심는 철보다 앞선 농촌풍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산의 시작법에 따른 연화율법 면에서도 의문이 간다. 6장은 한참 바쁜 모심기 철이 끝나고, 초복을 즈음하여 초벌 삼밭 메는 늙은 할멈의 고된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밭메기 소리가 있었을 법하다. 7장은 전형적인 농촌의 한 여름 점심 먹는 한가한 광경이며, 8장은 탐관오리의 수탈을 비판하고 있으며, 9장은 맹추의 가을배추를 준비하는 모습이며, 10장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늦은 봄날의 일로, 순서가 바뀐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장기농가 10장 중에서 음악적 주목을 끄는 것은 2장 ‘앙가’이다. 이를 통하여 장기지방의 모심는 풍경 중에서 음악적 설명이 가능한 모심기 소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다.

2. 타맥행(보리타작) 1수

이 보리타작 역시 장기에서 보았던 풍경으로,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新蕪濁酒如渾白(신추탁주여동백)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大碗麥飯高一尺(대완맥반고일척)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飯罷取糶登場立(반파취가등장립)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가에 둘러서니
雙肩漆澤纒日赤(쌍견칠택번일적)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呼邪作聲舉趾齊(호사작성거치제) 어허 호야 소리에 발 맞추어 두드리니
須臾麥穗都狼籍(수유맥수도랑적) 삼시간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雜歌互答聲轉高(잡가호답성전고) 주고받은 노래소리 점점 높아지고
但見屋角紛飛麥(단견옥각분비맥) 보이느니 집안 곳곳 흩날리는 보릿대

먼지뿐이로세

觀其氣色樂莫樂(관기기색락막락) 그 기색 보아하니 즐겁기 짝이 없어
 了不以心爲形役(요불이심위형역) 힘든 기색 조금도 없네
 樂園樂郊不遠有(낙원락교불원유) 낙원의 즐거움 먼데 있는 것 아닐 진댄
 河苦去作風塵客(하고거작풍진객) 언제나 바람에 떠도는 신세 면할 손가

다산은 이와 같은 장시에 특히 능했던 것 같다. 예로 들어, 다산이 병조참의으로 있을 때, 다산의 나이 34세(1795년) 윤 2월 9일의 일로, 정조가 '階下壽萬歲 臣爲二千石(계하수만세 신위이천석)'이란 시제로 글을 짓게 하니, 다산은 하루 밤에 200구의 7언 배율 1,400언을 지어 바치니, 정조는 이렇게 긴 장편에 놀라고, 신하들이 '文苑의奇才'라 평한 점에서 다산의 시에 대한 재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장기에서의 지은 보리타작시 역시 다산의 대표작으로, 너무나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시율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보리타작 풍경에서 음악적 해석이 가능한 두 구절을 주목하고자 한다. 곧 '호사작성' '가호답성전고' 구절이다. 보리타작 소리는 일반적으로 도리깨질 소리라고도 한다. 도리깨질 소리는 여러 명이 대를 맞춰 주고받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랫말 역시 짧게 단락 지어 붙여지며, 무엇보다 후렴소리가 도리깨질 소리의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다산은 이러한 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리타작에서 표현하고 있어 놀랍다. 보리타작 소리의 노랫말이 조금이라도 묘사된 구절이 있었다라면, 음악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 하지만 대체로 곡식을 타작하는 소리의 노랫말은 곡식을 얻게된 감사의 말이 많고, 이 곡식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봉사하겠다는 노랫말로 구성된다. 더욱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보리타작할 때의 대오 문제다 곧 일자진(一字陣) · 원진(圓陣) · 사각진(四角陣) 등 어떤 대오냐에 따라 그 울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울동에 따라 음악적 현상이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앞서기 때문이다. 아마도 장기에서 보았던 보리타작은 원진인 듯싶다.

3. 탐진촌요 15수

다산은 장기의 첫 유배지에서 이듬해 41세에 강진으로 이사한다. 강진을 탄소리로 탐진이라고도 부른다. 곧 제주도의 지명이 탐라(耽羅)인데, 탐진은 탐라로 떠나는 길목나무라 하여 부쳐진 이름이라 한다. 다산의 강진생활은 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로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다산은 이사 오든 해, 강진의 농촌풍경을 묘사한 탐진촌요(耽津村謠) 20수 · 탐진농가(耽津農歌) 10수를 비롯해 탐진어가(耽津漁歌) 10수를 짓는다. 본 장에서는 탐진촌요(耽津村謠) 20수 중 15만을 다루었다. 이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樓犁嶺上石漸漸(누리령상석점점) 누리령 고개 위에 우뚝한 바위들은
 長得行人淚酒沾(장득행인루주침) 지나가는 사람 눈물 젖게 하네
 莫向月南瞻月出(막향월남점월출) 월남으로 고개 돌려 월출산 보지 말라
 峰峰都似道峰尖(봉봉도사도봉첨) 봉우리마다 도봉산처럼 뾰족하기 그지 없네

2
 山茶接藥令童童(산다접엽냉동동) 동백나무 잎사귀 차면서 무성한데
 雪裡花開鶴頂紅(설리화개학정홍) 눈 속에 핀 꽃이 학 이마처럼 붉구나
 一自甲寅鹽雨後(일자갑인염우후) 갑인년(1794) 어느 날 소금비 내린 뒤로
 朱欒黃柚盡枯叢(주란황유진고총) 붉은 등자나무 노란 유자나무 모조리 말라죽네

3
 海岸尺簷百尺高(해안우당백척고) 바닷가 대밭 왕대 솟아 백 자나 되더니
 如今不中釣船篙(여금부중조선고) 요즘 갈아선 상앗대도 못 구하네

園丁日日培新笋(원정일일배신순) 원정들 날마다 새 죽순 길러내어
留作朱門竹瀝膏(유작주문죽력고) 죽력고 내어 주문에 바치느라

4
崩城敗壁枕寒丘(붕성패벽침한구) 쓸쓸한 언덕 위엔 성벽도 허물어져가네
鑪吹黃昏古磴頭(오취황혼고초두) 황혼녘 군악 소리 옛 주춧돌을 들썩거리건만
諸島年年空斫木(제도년년공작목) 해마다 여러 섬에 나무는 베어나도
無人重建聽潮樓(무인중건청조루) 청조루 다락은 중수하는 사람 없네

5
水田風起麥波長(수전풍기맥파장) 무논에 바람 일면 보리이삭 물결친다
麥上場時稻種秧(맥상장시도삽양) 보리 타작 하고 나면 모내기 철 이러니
崧菜雪天新葉綠(송채설천신엽록) 하늘서 눈 내려도 배추 잎은 새로 돋고
鷄雛蜡月嫩毛黃(계추사월눈모황) 설달에 깐 병아리는 노란 털빛이 어여쁘네

6
石梯院北路多岐(석제원북로다기) 석제원 북쪽엔 갈림길도 많아라
終古娘娘此別離(종고낭낭차별리) 예로부터 아가씨들 이곳에서 이별했네
恨殺門前楊柳樹(한살문전양류수) 한 서린 문전 앞에 수양버들은
炎霜摧折少餘枝(염상취절소여지) 풍상에 다 꺾이고 남은 가지 몇이런가

7
棉布新治雪樣鮮(면포신치설양선) 새로 짠 무명 베 눈결같이 고왔는데
黃頭來博吏房錢(황두래박이방전) 이방 돈준다고 황두가 뺏어가네
漏田督稅如星火(누전독세여성화) 누전 세금 독촉 성화같은데
三月中旬道發船(삼월중순도발선) 삼월 중순 세곡선 떠난다고 부산하네

8
莞洲黃漆澄琉璃(완주황칠형유리) 완주산 황옷칠은 빛나기가 유리 같아

天下皆聞此樹奇(천하개문차수기) 이 나무 진귀하다 천하에 소문났네
聖旨前年勅貢額(聖旨前年勅貢額) 지난해 임금께서 옷칠 공납 풀어준 뒤
春風髣髴又生枝(춘풍포포우생지) 베어낸 밑둥치에 새싹 나고 가지 뻗네

9
烏鬚總角髮如雲(오만총각발여운) 살빛 검은 오랑캐 총각 구름 같은 더벅머리
寫出三倉法外文(사출삼창법외문) 삼창필법에 없는 글씨 이상아름하게 글씨 쓰네
不是瓜瓞應呂宋(不是瓜瓞應呂宋) 과외에서 안 왔으면 여송에서 왔으려나
薔薇玉盒潑奇芬(장미옥합발기분) 장미 옥함 속엔 이상아름한 향내 뿐이네

10
蓮寺樓前水一規(연사루전수일규) 백련사 다락 앞에 바다 물결 둘러드니
春潮如雪上門楣(춘조여설상문미) 봄 조수같이 문 위까지 흰히 비쳤구나
名藍總隸頭輪寺(명람총예두륜사) 이름난 절들이야 두륜사에 속해더니
爲有西山御製碑(위유서산어제비) 두륜사에 서산대사 어제비가 있어서 인 것을

11
村童書法苦支離(촌동서법고지리) 시골 아이들 서법이 너무도 엉망이로다
點畫間波箇箇欵(點畫間波箇箇欵) 점·획·간·파 모두가 험상스럽더니
筆苑舊開薪智島(필원구개신지도) 지난날 이광사가 신지도에 글방 열어
掾房皆祖李匡師(연방개조이광사) 아전들 모두가 그를 스승 삼네

12
荊棘何年一路開(형극하년일로개) 어느 해쯤 가시밭 같은 귀향 살이 길이 열이리
黃茅苦竹似珠雷(황모고죽사주뇌) 누런 띠 이엉에 대 울타리 주뢰같이 싫네
刑房小吏傳呼急(형방소이전호급) 형방의 아전들 떠드는 걸 보아하니

知是京城謫客來(지시경성적객래) 서울서 또 한 사람 귀양 온 모양이다

13

三月松池馬市開(삼월송지마시개) 삼월달 송지읍에 마시장 열리누나
一駒五百揀天才(일구오백간천재) 한 필에 오백 편이면 천재 마를 골라
잡네

百聽蘿子烏驄帽(백총나자오총모) 흰 말총 광주리, 검은 말총 갓 이라는
都自擎山牧裏來(도자나산목리래) 모두가 한라산 목장에서 온 거라지

14

自古漸臺기鰻魚(자고점대기복어) 예로부터 높은 사람 전복죽 즐겨먹지
山茶濯食語非虛(산다탁식어비허) 동백 기름 머리 감는단 말 빈말이 아
니구나

城中小吏房櫳內(성중소이방롱내) 고을 아전 장롱 속에는
徧插奎瀛學士書(편삽규영학사서) 규영학사 글이 마구 꽂혀 있네

15

都督開營二百年(도독개영이백년) 도독부 창설한 지 이백 년이 지나도록
皐夷不復繫倭船(고이불복계왜선) 못엔 왜놈 배가 다시 오지 못하였네
陳隣廟裡生春草(진린묘리생춘초) 진린의 사당 안에 봄 풀 우거진데
漁女時投乞子錢(어녀시투걸자전) 때때로 어촌 아낙네 아들 빌며 돈 던
지네

이와 같은 탐진촌요에서는 주목할 점이 있다. 탐진촌요는 장기의 장기 농가와 같은 농촌풍경이 절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없다. 다산은 장기에서 남긴 시는 기성잡시(鬢城雜詩) 27수와 위에서 다룬 장기 농가 10장이 있는데, 마치 이 탐진촌요는 기성잡시에 비유되고, 탐진농가는 장기농가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탐진촌요에서는 강진의 농촌풍경을 소재로 한 내용이 농사절기에 의해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탐진촌요 15수 중에서 음악적 이해가 요구되는 4장과 5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청조루(聽潮樓)가 말해주듯이, 강진읍에 있던 옛 동헌의 황폐화되어 무상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시어 중 ‘요가(鑿歌)’라는 말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음악적 입장에서 요가는 ‘요량(鑿亮)·요취(鑿吹)’라고도 부르며, 요(鑿)의 뜻이 ‘징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징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와 행진음악인 군악(軍樂)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조선후기 강진에 꽤 규모가 큰 악대편성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5장은 장기농가에서와 같이 분명히 ‘앙가’라는 시어는 아니지만, 바쁜 모내기철에 강진의 모심기 소리를 암시하는 구절이다.

4. 탐진농가 10수

탐진농가 10수는 탐진촌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납日風薰雪正晴(납일풍훈설정청) 선달에 훈풍 불어 눈이 깨끗이 놓았네
籬邊札札曳犁聲(이변찰찰예리성) 울 밖 밭에선 이라 쫄쫄 쟁기 끄는 소
리로다
主翁擲杖噴傭懶(주옹척장진용라) 주인 영감 지팡이 들어 머슴보고 호통
하네
今歲纔翻第二畝(금세재번제이경) 금년에는 어찌자고 두벌같이 이제 하노

2

稻田洩水須種麥(도전설수수종맥) 벼 베는 물 빼더니 바로 보리 심고
刈麥即時還插秧(에맥즉시환삽양) 보리 베면 곧 이어 모심는다네
不肯一日休地力(불肯일일휴지력) 지력을 하루라도 놀릴 수 있지

四時變色青黃(四時신변색청황) 철따라 푸른색 누런색 아름답게 변한
다네

3
洌水之間丈二鍬(열수지간장이초) 한강변에 쓰는 가래 두 길이 넘어
健夫齊力苦酸腰(건부제력고산요) 장정이 힘 다해도 허리 아픈데
南童雙手持短鍤(남동쌍수지단삽) 남쪽에선 아이들도 한 손에 짧은 가래
用易治畦引灌遙(용역치휴인관요) 논 두 치고 물 대기 수월히 하네

4
豆蓂從來不用鋤(표근종래불용서) 김매고 북돋우기 호미를 쓰지 않고
手攀稂莠亦須除(수건랑유역수제) 잡초도 두 손으로 잠깐 동안 뽑아내네
那將亦脚蜷鍼血(나장역각기침혈) 맨다리에 거머리 붙어 붉은 피 흐르
는 데
添繪銀臺遞奏書(첨회은대체주서) 이 피로 그림 그려 은대에 바쳤으면

5
秧 households 婦女狂(앙호가가부녀광) 모내기철 집집마다 아낙네들 톱팔기
바쁘네
不曾刈麥助盤床(불증에맥조반상) 보리 베는 반상 일도 도울 생각 전혀
않고
輕違李約趨張召(경위이약추장소) 이서방네 뒤에 가고 장서방네 먼저 가네
自是錢秧勝飯秧(자시전앙승반앙) 예로부터 돈모 심기 밥모 보다 낫다
했지

6
豪家不惜萬緡錢(호가불석만민전) 부자집 돈깨미 아끼지 않더니
疊石防潮趁月弦(첩석방조진월현) 돌을 쌓아 바닷물 막어 반달만큼 일구
었네
舊拾蜂窠今穫稻(구습봉영금확도) 조개 줍던 옛 땅에 지금은 벼를 심어
由來瀉鹵是腴田(유래사로스유전) 어제의 개펄이 기름진 논이 됐네

7
懶習真從沃壤然(나습진종옥양연) 게으른 버릇들 진정코 기름진 땅 때문
인지
上農猶復日高眼(상농유복일고안) 상머슴 중천에 해 뜨도록 잠만 자누나
偷陰醉罵移時歌(투음취매이시가) 느티나무 그늘 걷히자 쉴 곳 없다 투
덜대며
徐取一牛耕早田(서취일우경조전) 서서히 소 한 마리 끌고 가뭄 밭 갈로
가네

8
陂澤漫漫不養魚(피택만만불양어) 넓고 넓은 연못 속에 고기 하나 살지
않네
兒童慎莫種芙蓉(아동신막종부거) 아이들이 삼가 하여 연꽃일랑 심지 마라
豈惟蓮子輸官裡(개유연자수관리) 연씨 열면 관가에 바칠 뿐만 아니라
兼怕官人暇日漁(겸파관인가일어) 관인들 틈내서 낚시 올까 두려구나

9
竹管鐵箸來成丫(죽관철저래성아) 대나무와 쇠꼬챙이로 만든 손 훑이
一穗須經一手爬(일혜수경일수파) 이삭하나 훑을 때마다 손 한번이 가는
구나
北方打稻皆全穗(북방타도개전총) 북쪽지방 벼 타작은 벧단 째 훑어내건만
豪快真堪向汝誇(호쾌진감향여과) 이것만은 호탕하게 남쪽사람들에게 자
랑할만하네

10
處處沙田宜吉具(처처사전의길구) 곳곳이 모래땅이라 목화심기 적당해라
玉川春織最稱奇(옥천춘직최칭기) 옥천에서 짜낸 무명베 자장 좋다 칭찬
하지
那將碌磳輕輕展(나장록독경경전) 어떻게 해야 씨레질 잘할 수 있을 랑고
落子調勻似置碁(낙자조균사치기) 종자뿌리는 일 바둑알 놓듯 고르게 해
야 제격인데

이러한 탐진농가 10수는 대체로 연한율법에 맞추어 쓰여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음악적 이해가 가능한 1장~5장과 10장을 주목하고자 한다. 1장의 쟁기질 소리 또는 씨레질 소리라고도 하는 음악적 현상을 살필 수 있고, 2장과 5장에서는 모심기 소리를 유추할 수 있으며, 3장에서는 가래질 소리를 살필 수 있고, 4장에서는 논 메기 소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곧 북부지방에는 논을 멜 때 호미를 가지고 메지만, 남녘 강진에서는 손으로 김을 메고 있어 김 메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으며, 10장에서는 옥전의 무명베를 칭찬하고 있다. 옥전은 강진군 도암면의 마을 이름으로 지금의 옥전(玉田)이다. 옛날부터 이 곳의 무명베는 세공목(세공목)으로 질 좋기로 유명하고 길쌈하는 농가가 많았다 한다. 이러한 구절은 길쌈할 때, 들려지는 베 짜는소리·베 메는소리·물레소리 등 연구필요성과 역사적 시사성을 제공하고 있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다산의 농가시에 대하여 음악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학의 귀결은 경학이다. 따라서 다산은 경학을 바탕으로 한 『악론(樂論)1·2』와 『악서고존(樂書孤存)』을 통하여 다산의 음악학을 형성한다. 그의 음악학은 6경의 하나인 『악경(樂經)』을 두고 있다. 고학을 복원한 것으로, '5천 년 전의 음악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것이라 스스로 평하고 있다. 다산은 진·한이래 『악경』의 망실로 인하여, 시를 잃어버렸고, 노래를 잃어버렸고, 음율을 잃어버렸기(『尙書』舜傳에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律和聲) 때문에 형벌이 난무하고 전쟁이 잦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

라서 다산의 『악경』복원은 시의 정신을 되살린 것이며, 음율을 되살려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다산의 시 정신은 『시경(詩經)』의 근본정신을 갈파하는데서 비롯된다. 다산은 『시경』의 근본정신을 간림(諫林)에 두고 있다. 시에는 육시(六詩)가 있는데, 송(頌)을 제외하고, 오시(五詩:5言)를 간출하면, 5언 중 풍(風)·비(比)·부(賦)·흥(興)은 풍자에 속한 시구이며, 아(雅)의 소아(小雅)·대아(大雅)는 정언(正言)으로 곧 바른말과 비판하는 시구를 통하여 임금에게 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다산은 풍자보다는 송의 뜻인 정언을 몸소 실천하는 시를 남김으로써, 다산의 시에 대한 비판적이고, 경세적이고 사회적인 수식어가 붙는 까닭이다. 따라서 다산의 시는 한마디로, 『시경』의 간림 정신과 『악경』의 조화정신이 합하였을 때만이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다산의 시 세계관을 더욱 굳건히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산은 시 소재를 농촌풍경과 농민들의 삶을 정밀하게 살펴서, 한 가지 소재를 정해 이것을 절기별·계절별 등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연환율법(連環律法)을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그려도 바로 그때 현장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듯 생동감 있게 묘사되는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다산의 시에는 또 하나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란 수식어가 부합된다. 또한 다산은 농가시에서 입증하였듯이, 토속적인 우리말을 시어로 구사하고, 다산이 71세에 '나는 조선인이기에 즐겨 조선시를 쓴다(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고 선언함으로써, 다산의 시에는 자주적이란 수식이 더 해진다.

둘째, 다산에게 있어서 불혹(不惑:40세)은 사환기(仕宦期)에서 유배기(流配期)의 생활로 극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다. 다산의 농가시는 역시 책룡사건(冊籠事件: 辛酉獄事)을 발단으로 쓰여진다. 유배생활 초기 40세~41세(1801~1802)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다산은 첫 유배지인 '장기(長鬢: 鬢城)'에서 장기농가(長鬢農歌) 10장과 이듬해 강진으로 이사해 탐진촌요(耽津村謠) 20수·탐진농가(耽津農歌) 10수·탐진어가(耽津漁歌) 10수

를 짓는다. 이러한 농가는 '탐진농가 발문'에서 그 경위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후에 탐진촌요 20수 · 탐진농가 10수 · 탐진어가 10장 등은 다산의 '탐진악부시'로 더욱 유명해진다.

셋째, 다산의 장기와 강진 농가시를 통하여 음악적 배경과 유기적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을 정리하였다.

- 1) 장기농가에서는 장기의 ① 모심기 소리, ② 보리타작 소리를 살필 수 있었다.
- 2) 탐진촌요에서는 강진의 ③ 군악의 자취를 살필 수 있었다.
- 3) 탐진농가에서는 강진의 ④ 쟁기질 소리 또는 씨레질 소리, ⑤ 모심기 소리, ⑥ 가래질 소리 ⑦ 논메계 소리, ⑧ 길쌈 소리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산의 농가시 뿐만 아니라, 옛 선현들의 문집에서 살필 수 있는 '가(歌) · 곡(曲) · 사(詞) · 요(謠) · 음(吟) · 풍(風)' 등의 시에 담긴 음악적 내용들을 문헌과 구전이라는 관점에서 유기적인 관계성을 정리한다면 보다 구전으로 전승된 민요의 역사성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다산, 『與猶堂全書』 1集, 『自撰 墓地銘(집중본)』, 『시경』

2. 단행본 및 논문

金相洪, 『茶山 丁若鏞文學 研究』, 단국대출판부, 1985.

金智勇 · 南晚星 역, 『茶山詩文選』, 대양서적, 1972.

金世鍾, 「三分損益法の 史的 考察-茶山の 『樂書孤存』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2.

朴錫武 譯, 「先仲氏 丁若鏞 墓地銘」, 『다산 산문선』, 창작과비평사, 1989.

朴錫武 譯, 『流配地에서보낸편지』, 시인사, 1981.

朴錫武 譯, 『哀絶陽』, 시인사, 1983.

宋載邵 譯註, 『茶山詩選』, 창작과 비평사, 1992.

李翼成 譯, 『茶山論叢』, 을유문화사, 1969.

鄭玉子,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 『奎章閣』 4,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투고일 : 2007. 12. 31. 심사일 : 2008. 1. 16. 심사완료일 : 2008. 2. 11.>

A study on the musical discourse found in Dasan's agricultural rhymes

Kim, Se-jong

Jeong Yak-yong (Dasan) is widely known as a scholar of practical science in the 19th century. However, he also had a profound knowledge about musicology. His musicology is based up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His musicology was established in the literary works including <Akron 1·2>, <Akseogojon>, and several other administrative poems. He argues penalties and wars were prevalent because the world had lost poems, songs, and rhymes after the Jin and Han eras when <Akgyeong> was destroyed. He understood the restoration of <Akgyeong> as a revival of the spirit of poems and the harmony of rhymes. In an effort to restore that, Dasan created several pieces of agricultural rhymes called "Chonyo," village rhymes. He left 10 pieces of Jangginongga, 20 of Tamjinchonyo, 20 of Tamjinnongga, and 10 of Tamjineoga. Therefore, the historical value of folk rhymes transmitted by word of mouth can be understood when we examine the musical passages in Dasan's agricultural poems. We can get a glimpse of rice-planting and barley-threshing rhymes of Janggi in Jangginongga. In Tamjinchonyo, the trace of military music in Gangjin can be found. Tamjinnongga gives us clues to understand ploughing or

harrowing, rice-planting, spading, weeding, and weaving rhymes in Gangjin.

This literary study, by clos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terature and the word of mouth, is expected to lead to an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standing the music transmitted by word of mouth.

Key words : Dasan(茶山), agricultural(農歌詩), Akron(樂論), Akseogojon(樂書孤存)